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9월 FOMC, 엔비디아 하락 등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7일(수) 미 증시는 장 초반 FOMC 대기심리 속 관망장세 이어진 가운데 이후 점도표, 파월 연준의장 발언으로 증시 변동성 확대.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엔비디아 AI 칩 구매 금지 보도 속 엔비디아(-2.6%), 브로드컴(-3.8%)이 약세를 보인 결과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 (다우 +0.57%, S&P500 -0.10%, 나스닥 -0.33%)

9월 FOMC에서 미 연준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4.00~4.25%로 25bp 인하,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결과. 연준은 경제전망(SEP)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0.2%p 상향한 1.6%, 1.8%로 전망했고, 실업률은 올해 4.5% 유지, 내년 4.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한편, 근원 PCE 전망치는 올해 3.1% 유지, 내년 2.6%로 상향 조정. 전반적으로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 고용, 물가 전망은 소폭 변화하는데 그쳤음.

결국,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하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와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초점. 점도표상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종전 3.9% → 3.6%로 조정. 연내 추가 2번의 25bp 금리 인하가 제시되었다는 점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 다만, 연준위원 19명 중 9명은 올해 1회, 10명은 2회 추가 인하를 지지함에 따라 연준위원 간 의견 불일치가 크다는 점은 불확실성 요인.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1회에 그칠 것으로 점도표상 전망되었다는 점이 시장 위험선호 심리를 일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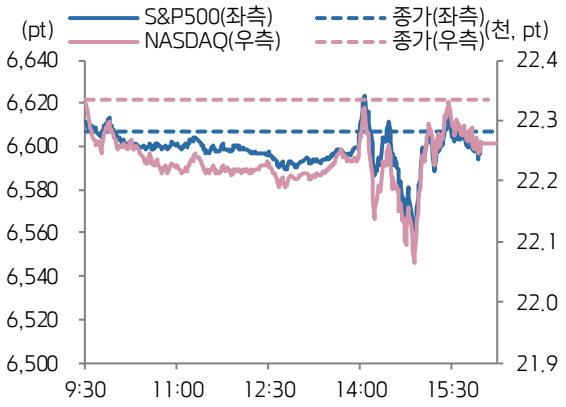
금번 25bp 금리 인하 단행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의장은 연속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론을 고수. 파월 의장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본 관점은 유지하지만, 일부 상품 가격 상방 압력은 예의주시해야한다고 언급. 한편, 파월 의장은 고용 둔화, 실업률 상승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 리스크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며 금번 금리 인하 결정은 위험 관리 수준의 인하라고 언급. 이는 향후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발언으로 시장은 해석하며 일부 매파적으로 평가.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FOMC였지만, 파월 연준의장 신중론 고수, 연준위원 간 불일치 등의 향후 금리 인하 불확실성 요인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을 극적으로 반영한 미 증시에 속도 조절 명분으로 작용. 이처럼, 혼재된 성격의 FOMC였지만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 향후 경기 지표에 따른 변동성은 염두에 둘 필요 있지만, 중기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위험자산 랠리를 지지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금번 속도 조절 과정에서 증시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 및 9월 FOMC를 앞둔 경계감 짙어진 결과 외국인 및 기관 동반 매도세 속 최근 랠리를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실현 매물 출회된 결과 양 지수는 하락 마감 (코스피 -1.05%, 코스닥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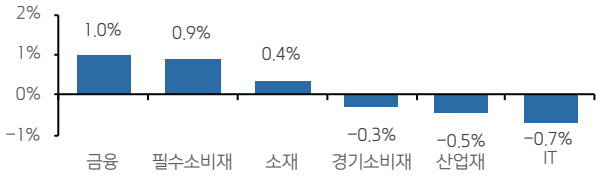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최근 랠리 속 차익실현 유인 증대, 혼재된 성격의 9월 FOMC, 중국발 엔비디아 악재 등을 소화하며 장 초반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 다만, 국내 정책적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을 회복하는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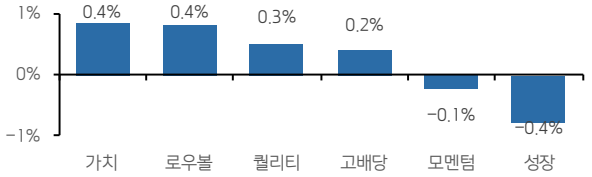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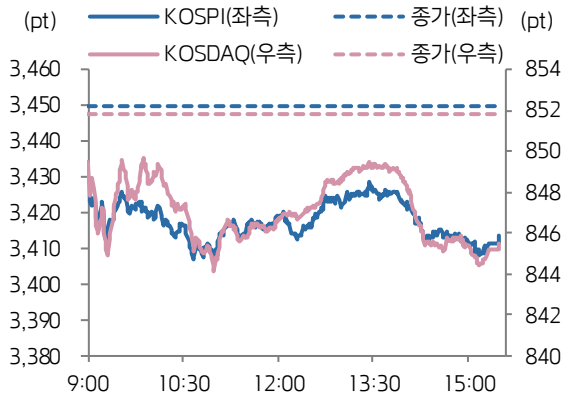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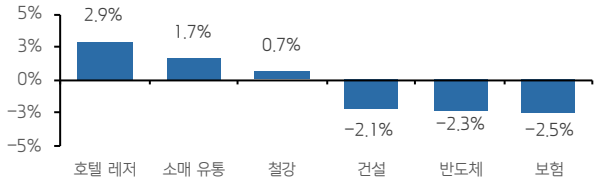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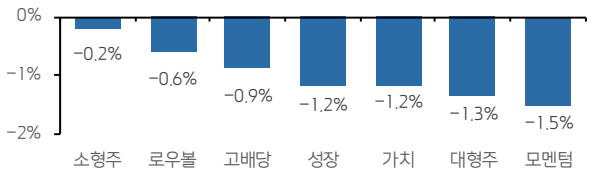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8.99	+0.35%	-4.23%	GM	58.73	+0.46%	+11.17%
마이크로소프트	510.02	+0.19%	+21.67%	일라이릴리	760.13	-0.6%	-0.95%
알파벳	249.53	-0.65%	+32.25%	월마트	104.27	+0.82%	+16.27%
메타	775.72	-0.42%	+32.71%	JP모건	311.75	+0.83%	+32.16%
아마존	231.62	-1.04%	+5.57%	엑손모빌	115.29	+0.53%	+10.15%
테슬라	425.86	+1.01%	+5.45%	셰브론	160.09	+0.34%	+14.38%
엔비디아	170.29	-2.62%	+26.84%	제너럴일릭트릭	104.27	+0.8%	+16.3%
브로드컴	346.17	-3.84%	+50.12%	캐터필러	450.66	+2.27%	+25.75%
AMD	159.16	-0.81%	+31.77%	보잉	214.63	-0.18%	+21.26%
마이크론	159.99	+0.74%	+90.53%	넥스트에라	70.31	+0.7%	+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413.40	-1.05%	+42.26%	USD/KRW	1,376.30	-0.23%	-6.52%
코스피200	466.99	-1.24%	+46.94%	달러 지수	97.02	+0.4%	-10.57%
코스닥	845.53	-0.74%	+24.67%	EUR/USD	1.18	-0.46%	+14.09%
코스닥150	1,416.25	-1.18%	+25.35%	USD/CNH	7.10	-0.04%	-3.22%
S&P500	6,600.35	-0.1%	+12.22%	USD/JPY	146.99	+0.35%	-6.49%
NASDAQ	22,261.33	-0.33%	+15.28%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6,018.32	+0.57%	+8.17%	국고채 3년	2.410	-0.2bp	-18.5bp
VIX	15.72	-3.91%	-9.39%	국고채 10년	2.775	-2.2bp	-9.6bp
러셀2000	2,407.34	+0.18%	+7.94%	미국 국채 2년	3.553	+5bp	-68.9bp
필라. 반도체	6,060.22	-0.31%	+21.69%	미국 국채 10년	4.087	+5.9bp	-48.2bp
다우 운송	15,502.27	-0.93%	-2.48%	미국 국채 30년	4.690	+4.2bp	-9.1bp
상해종합	3,876.34	+0.37%	+15.65%	독일 국채 10년	2.675	-1.8bp	+30.8bp
항셍 H	9,596.77	+2.24%	+31.64%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2,693.71	+0.38%	+5.83%	WTI	64.05	-0.73%	-6.92%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7.95	-0.76%	-8.96%
Eurostoxx50	5,369.70	-0.05%	+9.68%	금	3,717.80	-0.2%	+34.37%
MSCI 전세계 지수	976.38	-0.04%	+16.05%	은	41.72	-1.76%	+42.68%
MSCI DM 지수	4,269.83	-0.08%	+15.16%	구리	457.10	-1.34%	+13.52%
MSCI EM 지수	1,339.91	+0.84%	+24.59%	BDI	2,154.00	+0.05%	+116.05%
MSCI 한국 ETF	79.83	-1.07%	+56.87%	옥수수	426.75	-0.64%	-3.83%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28.25	-1.08%	-11.74%
비트코인	115,656.17	-1.06%	+23.41%	대두	1,043.75	-0.57%	+1.8%
이더리움	4,504.25	+0.1%	+34.6%	커피	375.65	-8.23%	+29.8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9월 1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